



## 미국 3/4분기 GDP성장률, 2.0%로 하향 조정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11월 22일 미 상무부는 2011년 3/4분기 GDP 성장률을 잠정치 2.5%에서 0.5%p 하향 조정한 2.0%로 수정하였음.

- 3/4분기 GDP 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은 2/4분기 1.3%에 비해 상승하였는데, 이는 2011년 초 민간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켰던 고유가 및 일본 대지진에 따른 공급망 교란 등의 요인이 해소되었기 때문임.
- 민간소비는 잠정치 2.4%와 유사한 수준인 2.3% 증가하였으나 실질가처분소득은 여전히 2.1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민간부문 투자 증가율은 16.3%에서 14.8%로 수정되면서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.
- 재고투자는 54억 달러 증가에서 85억 달러 감소로 수정되면서 2009년 4/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으며, 수출 증가율은 4.0%에서 4.3%로 상향 조정됨.

■ 한편 11월 23일 상무부는 10월 내구재 주문이 0.7% 감소하고 소비지출은 0.1%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했으며,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1월 들어 3주째 4만 명선을 하회함.

- 내구재 주문 감소는 자동차 주문이 6.2%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운송장비 주문이 4.8% 감소하고 핵심자본재 주문도 2011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(-1.8%)의 감소를 기록했기 때문임.
- 10월 소비지출은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소비가 증가한 반면 음식료품, 의복 등의 비내구재 소비가 감소하면서 9월 0.7% 증가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(0.1%)되었으며, 실업수당청구건수는 3주 연속 4만 명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남.
- 10월 ISM 제조업 지수는 9월에 비해 악화되었으나 여전히 확장 기준선인 50을 상회하고 있으며, 미시건대의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 60.9에 비해 크게 상승한 64.1을 기록함.

(New York Times, 11/22)